

행복e음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합사례관리 현황 분석¹⁾

연구센터 한은희 부연구위원

(☎02-6360-4673)

1. 들어가며

통합사례관리는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가는 사업”²⁾임.

지자체에서 수행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12년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6년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17~'18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에 따라 읍면동으로 확대됨.

통합사례관리 사업 대상은 서비스연계가구와 사례관리가구로 구분함.

- 사례관리가구는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 그리고 사례회의 등의 절차가 적용 됨.

사례관리 절차는 총 8단계로 이루어짐: 1)대상자 접수, 2) 욕구 및 위기도 조사, 3)사례회의개최, 4)대상자 구분 및 선정, 5)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6)서비스제공 및 점검, 7)종결, 8)사후관리

본 고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부터 '13~'16년 통합사례관리 사업 대상 중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함.

2. 통합사례관리 현황

■ 사례관리가구 일반 현황

통합사례관리 가구 수는 '13년 약 50,000 가구에서 '16년 약 150,000 가구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례관리 가구 수는 '13년 약 27,000가구에서 '16년 약 80,000가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사례관리가구 유형은 대체로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고, 한부모 가구, 청장년 1인 가구, 부부중심 가구, 노인부부, 조손 가구 순임.

- '13년부터 '16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독거노인 가구 비중은 24%에서 37%로 증가한 반면 한부모와 부부중심 가구의 비중은 각각 22%와 16%에서 17%와 12%로 줄어듦.
- 1인 가구는 '13년 41%에서 '16년 54%로 증가 추세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및 한부모, 장애인 관련 수급자의 비중이 약 90%를 차지함.

■ 사례관리가구 욕구 영역

욕구조사는 10개의 영역과 각 영역 당 2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총 20개의 세부 욕구 영역, 그리고 각 세부 욕구영역에 구체적인 현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사례관리 가구의 욕구는 경제적 어려움(기초생활해결), 신체적 건강 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정신적 건강유지, 주거환경 개선이 높은 순위를 차지함.

신체 건강 유지 욕구를 가구의 비율은 커진 반면, 취(창)업 및 교육 욕구를 가진 가구의 비율은 작아짐.

평균 세부 욕구 영역 개수는 2.8(2013), 3.0(2014), 2.5(2015), 그리고 2.4(2016)개이며, '15년 이후 감소 추세임.

■ 사례관리가구 서비스 연계 현황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 일상생활유지, 신체 및 정신건강, 취업 및 고용유지 영역의 연계 비율이 높은 편임.

안전 영역의 연계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나 4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장·단기 목표달성 및 상황호전 등 긍정적 종결이 평균 약 85%임.

- 자체 종결, 이사 또는 사망, 거절 및 포기, 연락 두절이 매해 약 15-20%임.

3. 나가며

'13~'16년 사이에 전체 통합사례관리 대상 및 사례관리 대상 절대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 사례관리 가구 중 법적급여 수급층의 비중이 높은 것은 성과이자 한계로 여겨짐.

사례 유형에 대한 세분화와 유형에 따른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됨.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함.

1) 한은희 외(201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합사례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중 일부 발췌하여 정리함

2) 보건복지부(2018) 「2018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p.21